

“현대차는 인도의 일부… 월평균 300대, 축제 땀 500대 팔려”

Q & A

인도 ‘쿤단 현대’

차다 대표, 고객 선호도·수요 체감 인기모델 7~8개월 이상 출고 지연 “현지 생산 확대, 긍정적 작용할 것”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 진출 30년을 맞은 가운데 현지 딜러망에서도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수요 확대를 체감하고 있다. 차량 판매뿐 아니라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형 딜러숍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안전성과 첨단 사양, 차량 이용 경험을 중시하는 인도 소비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차칸 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판매점 쿤단 현대(Kundan Hyundai) 전시장 규모는 약 155평(512㎡)에 달하며 소형차·20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 등 6종이 전시돼 있었다. 특히 이곳은 차량 전시는 물론 차량 정비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히테시 차다 쿤단 현대 대표는 “현대차는 프리미엄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사양,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선호를 얻고 있다”며 “3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인도의 일부이자 국민에게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5일(현지 시각)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차칸 지역의 현대자동차 판매점 ‘쿤단 현대’ 실내 모습. /양성운 기자

고 말했다.

쿤단 현대는 2008년부터 딜러 사업을 운영했으며 차량 전시·판매와 사후서비스(AS)를 함께 제공한다.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서비스베이 15개를 갖췄으며 2만 개 이상의 부품을 확보해 고객의 차량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차 판매 이후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역량을 통해 고객의 신뢰와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쿤단 현대는 월평균 300~350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알리와 두세라 등 인도 주요 축제 기간에는 500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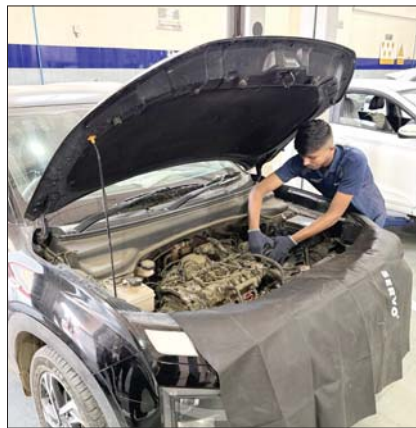
차다 대표는 “인기 모델은 고객 수요에 따라 출고까지 7~8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차량 구매 시 할부를 활용하

는 소비자가 많으며 가족 규모와 소득, 생활방식에 따라 차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구매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선루프와 커넥티비티, 엔터테인먼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다양한 사양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SUV 선호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차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젊은 고객층과 기존 브랜드 충성 고객이 함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동화 전환도 진행 중이다. 쿤단 현대의 전기차 월 판매량은 약 15대로 전체 판매의 5% 수준이다.

차다 대표는 “전기차는 총소유비용 측



‘쿤단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정비기사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면에서 유리하지만 초기 구매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15~20%가량 높다는 점이 부담”이라며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신차 출시를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푸네공장 가동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났다. 현지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차량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소비자와 브랜드 간 유대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다 대표는 “푸네에서 직접 생산이 이뤄지면서 지역 고객들이 현대차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다”며 “현지 생산 확대가 판매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네(인도)=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1면 ‘원샷 환경평가로…’서 계속

‘메뉴판식 특례’ 등 논의 연내 특별법 제정 방침

민주당은 지자체와 기업이 사업 특성에 맞게 필요한 특례를 골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메뉴판식 특례’ 구조 등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도 법안 초안에 포함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구마모토 TSMC’ 보다 빠르게

‘뿔’ 건설 속도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의 경우 입지 발표부터 반도체 양산 시작까지 3년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용수 사용 허가, 도로 정비 등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평가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평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특별법에 담아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인 바 있다.

늦어도 2030년 반도체 양산 전망
환경단체 “절차적 정당성 고민돼야”

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2008년 도입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바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처럼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2029년 가을, 늦어도 2030년에는 반도체 첫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절차 단축에 반발하는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8월11일 낸 성명서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 산업은 대규모의 물과 전력을 소비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라며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이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재차 단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 지역 갈등이라는 청구서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대도약’이 아니라 ‘뱃터미’가 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는 지금이라도 속도가 아니라 정직한 계산과 절차적 정당성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두산·두산에너지빌리티, 김민철·박상현 부회장 승진

최고재무책임자 중심 인사 단행
두산에너지빌, 송용진 COO 선임

(주)두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민철 대표이사 사장과 두산에너지빌리티 CFO인 박상현 대표이사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두산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16일 김민철·박상현 부회장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주)두산 김민철 신임 부회장은 2006



김민철
두산 부회장



박상현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

년 (주)두산 재무분석(FA)팀 상무에서 2011년 경영전략 전무, 2018년 대표이사 부사장, 2020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해왔다.

박상현 부회장은 2022년부터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2008년 (주)두산 지주 부문 기업금융프로젝트(CFP)팀 상무, 2013년 두산인프라코어(HD건설기계 전신) 재무관리부 문장과 2015년 (주)두산 지주 부문 부사장, 2018년 두산밥캣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이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전략·혁신부 문장 송용진 사장을 신임 최고운영책임

자(COO)로 선임했다. 송용진 COO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2008년 두산에너지빌리티 전략팀장으로 합류해 전력·혁신 부문장과 풍력 사업 부문(BG)장을 맡았다.

박상현 부회장 지휘 아래 송용진 COO 주도로 원자력과 가스터빈, 해상 풍력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metro

中 반도체 기업 약진… 삼성·SK, HBM·차세대 D램 ‘맞붙’

CXMT, 3분기 매출 500% 이상 증가
삼성전자, HBM4E 12단 샘플 공급
SK하이닉스, 3차원 적층 D램 연구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범용 D램에 이어 차세대 서버용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고도화와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경제매체 제일경제 등은 CXMT의 올해 3분기 매출이 1147억~119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6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33억 9500만~548억 9500만 위안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글로벌 D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생산능력 확대 등이 실적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CXMT는 지난 10일 차세대 D램 셀 구조인 포에프스퀘어(4F²)를 적용한 서버용 DDR5 RDIMM을 연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F²는 기존 6F² 구조보다 같은 공정 기준 메모리 셀 면적을 이론적으로 약 33% 줄이는 기술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 성능과 양산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6)’에서 7세대 HBM인 HBM4E를 나란히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 베이스다이를 적용해 최대 16Gbps의 데이터 전

송 속도와 초당 3.6TB의 대역폭을 구현했다. 지난 5월에는 HBM4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

SK하이닉스도 최대 16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한 HBM4E를 공개했다. 기존 HBM4보다 전력 효율을 20% 이상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6월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공급한 뒤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D램 셀 구조 개발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 4F² 구조를 적용한 16Gb D램 테스트 칩의 읽기·쓰기 동작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 기술책임자(CTO) 사장은 지난 14일 행사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수직 게이트 기반 4F² 기술과 3차원(3D) 적층 D램 연

구를 이어가고 있다.

HBM 이후를 겨냥한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연산장치 위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는 ‘zHBM’과 메모리 내부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하는 ‘LPDDR-PIM’, 차세대 낸드 솔루션 ‘zNAND-O’를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기반으로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용량 저장 능력을 확보하는 고대역폭플래시(HBF)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샌디스크와 함께 HBF의 첫 표준 규격을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CXMT가 서버용 D램에서 실제 양산 수출과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HBM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